

《가정영상예배》

• 설교: 서일원 목사

사도신경 다같이

찬 양 다같이

1. 나의 가는 길
2. 매일 매일
3. 나의 피난처 예수
4. 내 안에 사는 이

기 도 다같이

- ① 우리가 정직한 영으로 청결하게 살지 못하고, 겸손과 온유, 서로 용납함으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죄악을 자백하고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씻기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 ② “진리에 관하여 그릇된 자들”(딤후2:15-18)을 경계하고, “진리의 지식과 경건함에 속한 믿음의 가르침”(딤후1:1)을 따라 살도록 도와 주십시오.
- ③ 가난한 이웃들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도와주셔서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 주십시오.
- ④ 잘못된 정보와 뉴스로 인해 불안감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 ⑤ 최일선에서 수고하는 의료진, 방역담당자, 감염차단에 애쓰는 모든 이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성경봉독 서일원 목사
에스겔 37장 7-10절 (구약 p.1209)

설 교 설교자
“포기할 수 없는 개혁”

마침기도 설교자

※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잠정 중단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세

신앙을 인문학의 프리즘을 통해 보게 해주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강남비전교회의 한재욱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의 글 한편을 인용합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해 주는 글입니다.

제목: “내가 알지!”

미켈란젤로는 <천지창조> 천장화를 그릴 때 무려 4년 동안이나 성당에 틀어박혀 그림에만 매달렸습니다. 사람들의 출입까지 통제해가면서 말이지요. 어느 날 그는 고개를 뒤로 젖힌 채 불편한 자세로 천장의 한쪽 구석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를 보면서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잘 보이지도 않는 구석에 뭘 그렇게 정성을 들이나? 완벽하게 그렸는지 아닌지 누가 알기나 하겠어?”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바로 내가 알지!”

EBS 대한민국 성공시대 편저(編著) 「지구인 이야기」(온유, 240쪽) 중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자신이 재림한 예수라고 말하는 악한 사이비 교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남편, 내 아버지는 결코 재림 예수가 아니라는 것을 아내가 알고 자식들이 알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자신이 잘 압니다. 그러나 더 악한 사기꾼은 자신마저 속이려 합니다. 최고의 사기꾼은 남을 속이는 자가 아니라 자신을 속이는 자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갈6:7)

코로나 사태가 예상외로 길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갈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감염방지에 힘쓰는 정부를 돕기 위해 방역 지침에 잘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거의 한달 넘게 외부출입을 삼가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교회, 집 그리고 마트 정도만 왔다갔다 합니다. 퇴근 후에는 집에만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가 집에서 무엇을 하는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집안 식구도 각자의 일이 있다보니 많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 자신은 압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지 압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 미뤄둔 성경읽기에 매진해 보십시오. 영상예배의 기도문을 정리하여서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바쁘게 살아온 우리에게 갑자기 주어진 시간들이라 그냥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그리스도인이기에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세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매일

Words & Music by 찬612




기도제목 Prayer

1.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2. 전세계의 코로나19 상황이 차츰 진정되게 하소서.
3. 경제적으로 힘든 저소득층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게 하소서.
4. 후원하는 현지 목회자 가운데 함께 하소서.
 - ① Bohdan Roháček - Michalovce
 - ② Jose Calvo Aguilar - Žilina
 - ③ Martin Kačur - Spišská Nová Ves
 - ④ Peter Prištiak - Hermanovce nad Topľou
5. 형제교단에 소속된 교회들 가운데 함께 하소서.
 - ✧ Michalovce 교회 - Marek Jurčo 목사



큐티나눔말씀 Word for Quiet Time

날짜(요일)	본문
3월 29일(주일)	막 12장 1 - 17절
3월 30일(월)	막 12장 18 - 34절
3월 31일(화)	막 12장 35 - 44절
4월 1일(수)	막 13장 1 - 13절
4월 2일(목)	막 13장 14 - 37절
4월 3일(금)	막 14장 1 - 11절
4월 4일(토)	막 14장 12 - 21절

◇ 주일모임안내

모임	시간
오전예배	오전 10시 30분
학생회	오전 9시 (3-6월, 9-12월)
어린이 주일학교	오후 12시 40분 (3-6월, 9-12월)
마더와이즈	오후 12시 40분 (3-6월, 9-12월)
오후 성경공부	오후 12시 40분 (3-6월, 9-12월)

◇ 주중모임안내

모임	일시
큐티나눔모임	화요일 오전 10시 (3-6월, 9-12월)
수요기도회	수요일 오후 7시



광고 Announcement

• 예배 안내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하여 저희 질리나 한인교회는 슬로바키아 정부와 형제교단의 지침을 따라 코로나19 상황 해제시까지 영상을 통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영상은 유튜브에서 '질리나 한인교회'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 모임 안내

슬로바키아 정부의 코로나19 상황 해제 지침이 있을 때까지 교회 내 모든 모임을 잠정 중단합니다.

• 질리나한인교회 카톡방 개설

매주 예배 찬양을 카톡방에 올리고 있습니다. 관심있으신 분은 카톡방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카톡 채팅방에서 '질리나한인교회'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 TAX 2% 후원요청

한국문화원(한글학교 슬로바키아법인명)에 후원하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 정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세금납부기간: 법인 - 3월말, 개인 - 4월말

• IČO(등록번호): 42069017

• Právna forma(등록법인종류): občianske združenie(비영리법인)

• Obchodné meno(등록법인명): Kórejské Kultúrne Centrum

• 주소: Na Sihoti 4, 010 01 Žilina

봉사위원 | Volunteers in Month

월	일	예배기도	성경봉독	헌금위원
		오아름	노신원	이승진
		이가영	문현호	이진일
		이승진	박시몬	장기상
		이정익	박영환	장래성



질리나한인교회
Korean Church of CB in Žilina

2020년 3월 29일
(13주)

KÓREJSKÝ ZBOR CIRKVI BRATSKEJ V ŽILINE

NA SIHOTI 4, 010 01 ŽILINA, SLOVENSKO

홈페이지: www.zilina.kr / 담임목사연락처: 0903 415 821

《교회 표어》 감사하고 또 감사하자!

- ① 어디에 있든지 감사합니다.
- ②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합니다.
- ③ 이웃과 감사를 나눕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시편 100편 4절)

✿ 섬기는 사람들

- 담임목사: 서일원 ▶ 제작: 김영수, 김은혜, 박시몬, 박영환, 서제원
 ■ 찬양팀: 서제원, 정세영
 ■ 성찬준비: 안온선, 이진일